

뒷마루에 앉아 보이지 않는 김동리를 떠올리다

김동리의 '등신불' 집필처 ③ 사천 다솔사(多率寺)

김동리는 다솔사가 마음에 들었다. 고향의 자연을 사랑했던 그는 고향에 있는 것들이 모두 있는 다솔사가 마음에 들었다. 한 해 겨울을 살고 나서 나중에는 그 곳에서 한참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등신불'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묵는 절간 방문 앞에는 크고 작은 파초가 여러 포기 다른 나무와 꽃들을 가리듯 하고 서 있었다. 넓은 뒷마루에 나앉아 갠 하늘과 파초 잎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삐꾸기 소리, 딱따구리 소리, 북소리, 경쇠 소리들마저 귀로 들려온다기보다 파초 잎이 문혀다 전해주는 듯한 작각을 일으키곤 했다."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503년에 연기 스님이 세운 절이다. 전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에 들어서면 어느새 깊은 숲의 호흡이 다가오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새 소리는 숲의 깊이를 전해온다. 숲길의 끝에 서면 적멸보궁을 둘러싼 돌담들이 자연스럽게 도랑으로 들어서게 한다. 일제강점기 때 만해 스님을 비롯한 호당 최범술, 변영태, 변영만, 김범부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 '터'로 썼던 대양루가 도랑 맨 앞쪽에 서있다. 적멸보궁에는 와불상이 모셔져 있고 와불 너머로 사리탑이 있다. 김동리가 '등신불'을 썼던 안심료는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곳이기도 하다. 고찰들이 대부분 그렇듯 다솔사도 자장율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나옹선사 등 여러 선지식들이 머물다 갔다.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무녀도', '등신불'의 김동리(1913~1996)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시절을 다솔사에서 보냈다. 말형 범부를 따라 다솔사를 찾았던 그는 만해 스님을 만나게 되고, 만해 스님과 범부와 주지 범술 스님의 대화중에 '소신공양(燒身供養)'에 대해서 듣게 된다. 충격을 휩싸인 그는 그 때 벌겋게 달아오른 항로를 머리에 쓰고, 가부좌 자세로 소신공양을 하는 '만적' (등신불의 주인공)을 만들어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에 발표

된 소설 '등신불'에서 만적 스님은 그렇게 소신공양을 한다. 만적 스님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집을 나가게 된 이복 동생을 찾아 나섰다. 동생을 찾지 못한 채 출가를 하게 되고,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린 동생을 만나게 된다. 동생을 다시 만난 만적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에 걸었던 염주를 동생의 목에 걸어주고 그길로 절에 돌아와 음식을 굶는다. 그리고 이듬해 봄 소신공양을 한다. 끊어낼 수 없는 번뇌를 짊어진 채 만적 스님의 육신은 연기로 화했고 퍼붓는 비로도 재울 수 없었던 뜨거운 몸짓은 등신불이 되었다.

'등신불'은 종교를 소재로 다루면서도 실존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짧은 줄거리 안에서 시간과 공간, 인물과 상황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단편의 속도감 속에 끝까지 여유롭게 스며있는 '불교'는 이 소설의 진정한 매력이다. '등신불'을 집필했던 안심료 뒷마루에 앉아 보이지 않는 방안의 김동리를 떠올렸다.

다솔사는 키 큰 나무 숲 대신 차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신라 때부터 있었던 차밭은 호당 스님의 손을 거쳐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밭에서 보면 도랑이 차밭을 지고 있고, 차밭에 올라 내려다보면 도랑은 등지 속에 안겨 있는 듯했다.

차밭을 따라 올라가면 범당의 지붕들이 산 능선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른 잎의 차밭 때문인지 차밭에 둘러싸인 다솔사는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도 그다지 앙상해 보이지 않았다. 차밭을 따라 걷다보면 도랑을 모두 둘러보게 된다. 도랑을 다 보고 내려왔을 때 후원 골짜기에서는 뽕안 연기가 솟고 있었다. 밥냄새를 맡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연기 끝에는 낮달이 짙어가고 있었다.

김동리는 사는 동안 다솔사와 사천에서 11년을 살았다. 그는 등신불 외에도 많은 작품을 통해 고향과 자연, 삶과 종교를 소설화 했다. 김동리의 작품엔 단편들이 많다. 다솔사에 간다면 안심료 뒷마루에 잠깐 앉아서 그의 단편 하나 읽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등신불 말고도 1977년에 발표된 '저승사'는 절집에 앉아 읽을 만한 단편이다.

글·사진 = 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차밭에 둘러싸인 다솔사 전경.

다솔사 숲길에선 산재들이 숲의

깊이를 전해온다

다솔사 가는 길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 위치한 다솔사는 봉명산 국립공원 안에 있다. 남해고속도로 곤양 나들목에서 우회전하면 다솔사 이정표가 나온다.

대중교통은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75번 시내버스를 타고 곤양버스터미널까지 간다. (약 25분 소요) 곤양터미널에서 다솔사까지는 택시로 10분 정도 가면 된다. #문의 (055) 853-0283



김동리가 '등신불'을 지필했던 안심료.



다솔사를 오르는 숲길.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양산, 향엄, 임제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법인 설립

간부 및 종도 입종안내

우리종단 특징?

1. 회원을 위한 법률서식 비치.
2. 자동 인사관리와 입종내역.
3. 재직증명, 인사기록 발급.
4. 사유재산보호, 신도확보안.
5. 타 종단 통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활동.
6. 은둔생활이 아닌 생활불교 실천방안.
7. 대한민국 불교문화예술 대공모전 준비.
8. 사업계획서 등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

입종안내

비구, 비구니, 법사, 작가스님 등.

재야작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소, 도예, 공예, 불교미술 등

등록서류

본종 소정의 양식 이메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법인설립추진위원장 人化堂 知道 外一同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3-3 미승사 총무원
☎(055)747-8006 팩스754-8004 / 010-5518-0108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국산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배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배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배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관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02)742-0172 대구법당: 053)425-3063
평강법당: 054)261-2231 울산법당: 052)211-2161
부산법당: 051)514-3566 대전법당: 042)862-5539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